

미국 서반구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영향

미래전략개발부 미래전략팀
류 주 은 (fwd3270@kdb.co.kr)

- ◆ 미국은 서반구를 안보·경제의 핵심축으로 재정의하고, 북극권의 전략적 선점과 중남미·카리브해의 공급망 및 안보 주도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세력권 전략을 본격 추진
- ◆ 미국의 서반구 전략은 동맹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,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촉진하며,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여지를 제공

□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 외교·안보 정책을 기존의 '글로벌 패권주의'에서 '서반구 중심 세력권 전략'으로 전면 전환

- 트럼프 행정부는 '25년 12월 5일 국가안보전략(NSS*)을 통해 먼로 독트린**의 '트럼프식 변용(Trump Corollary)'을 발표하며 서반구 주도권 확보를 선언
 - * National Security Strategy, 새 행정부 출범 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최상위 외교·안보 지침
 - ** 1823년 발표된 외교원칙으로, 중남미를 포함한 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화 및 개입 차단
- 서반구는 미국 본토와 인접한 북미·중남미·카리브해를 포괄하며, 본토 방어와 에너지·핵심광물 등 자원 안보의 핵심 배후지
- 19세기 유럽의 개입을 차단했던 먼로 독트린을 계승해 서반구 내에서 중국, 러시아 등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, 미국의 배타적 주도권 강화 추진
- 서반구 전략은 미군 전력 서반구 중심 재배치, 불법이민·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해상·국경 통제 강화, 역내 자원 기반의 공급망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명시
 - 탈냉전 이후 지속된 소글로벌 개입 중심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, 미군 전력과 정책 역량을 자국 핵심 이익과 직결된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

□ 서반구 전략에서 북극권은 자원·물류망 확보 및 본토 안보의 핵심지로 재조명

- 북극권은 미국 알래스카, 캐나다 북부, 그린란드를 포괄하며, 특히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북극항로의 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 증대
 - 그린란드 빙하에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대량 매장되어 있고, 최근 해빙으로 인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치 증대*
- * 가디언(26.01.15), "Greenland: new shipping routes, hidden minerals – and a frontline between the US and Russia?"

- 동시에 북극권은 미·러 경쟁의 전략적 전초기지로, 그린란드는 북극을 경유하는 미사일 경로 상에 위치하여 미 본토 방어와 조기경보 체계의 핵심지역
 -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을 따라 군사기지를 집중 배치하며 항로·자원 통제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, 미국과 NATO*도 북극권 전반에서 군사력 강화
 - * 1949년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출범한 북미와 유럽 국가 간의 집단방위기구
 - 그린란드와 인접한 캐나다와는 안보 협력을 통해 북극 감시·방공 역량을 공동 강화하는 한편, 캐나다 앞 방위비 분담 확대 및 역할 증대를 강력히 압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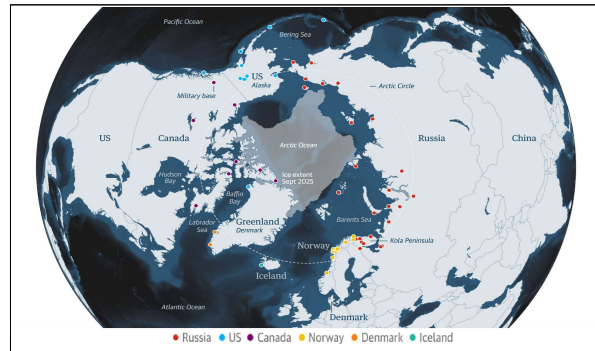
- 최근 미 정부는 중·러 견제를 명분으로 그린란드 매입 또는 영토 확보 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며, 필요시 군사적 수단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*
 - * 로이터('26.01.07), "Trump discussing how to acquire Greenland, US military always an option"

서반구 구분도



주 : 서반구는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반구
출처 : Encyclopedia Britannica, "Western Hemisphere"

북극권 주요 군사 거점 분포도



출처 : 가디언('26.1.15), "Greenland: new shipping routes, hidden minerals – and a frontline between the US and Russia?"

□ 중남미·카리브해는 서반구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,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안보 주도권 확보, 경쟁국의 영향력 축소 추진

-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자산 통제*, 핵심광물협의체(FORGE)** 출범, 홍콩 기업 파나마 항구 운영권 박탈*** 등 자원·물류 요충지를 대상으로 주도권 강화 추진
 - * '26.1월 행정명령을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금 예치·관리 의무화, 미 기업의 현지 운영권 확보
 - ** '26.2월 출범한 다자간 핵심광물 협의체로, 안데스 리튬-구리 공급망 내 중국 자본 배제가 핵심
 - *** '26.2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 하에 파나마 대법원이 중국계 항구 운영권 박탈

- 중남미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, 미 국경 통제를 넘어 서반구 전역으로 물리적 대응 범위 확대
 - 멕시코 정부에 카르텔 소탕 및 이민 차단 강화를 압박하는 한편, 카리브해 마약운반선 정밀 타격 등을 통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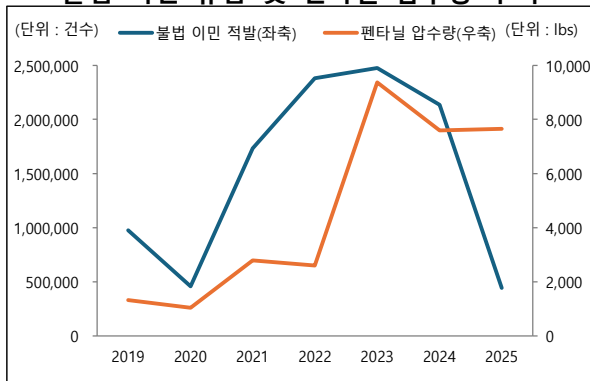
○ 경제 제재 및 외교 압박으로 반미 정권*의 자원·금융 흐름을 통제하고, 중국 등 역외세력의 인프라·항만·투자 영향력 축소 주력

*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반미 성향이 강한 쿠바·베네수엘라·니카라과를 악의 트로이카로 규정

-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목표로 한 배타적 접근이 역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*

* 브루킹스 연구소('25.12.8), "Breaking down Trump's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"

불법 이민 유입 및 펜타닐 압수량 추이



주 : '25년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 시행으로 불법이민 급감
 자료 : U.S. CBP, Southwest Border(미·멕시코 접경) 기준

'26년 NSS 후속 對중남미 주요 안보·외교 조치

시기	주요 조치
1월	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및 압송
1월	쿠바행 유조선 나포 및 쿠바 석유수출국 대상 보복 관세 행정명령 서명
1월	멕시코 내 펜타닐 단속목적 미군 투입허용 요구 및 멕시코의 정보 공유 강화 제안
2월	멕시코 카르텔 수장 '엘 멘초' 제거 지원
2월	남부사령부의 카리브해 마약운반선 연쇄격침

자료 : 보도자료 요약

□ 서반구 전략은 동맹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에,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여지를 제공

○ 미국은 그린란드 확보 시도와 함께 NATO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,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, 유럽에 대한 직접 개입을 줄이는 전략 병행
 - 유럽은 그린란드 관련 압박에 크게 반발하고, 자체 방산 역량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여 기존의 NATO 중심 안보구조는 점진적 조정 압력에 직면

○ 일부에서는 미국 전략 재편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압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, 양국의 전략적 입지가 확대되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평가*

* 박병광 외 5인, "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서(NSS): 세계관 재편과 그 함의", INSS 전략보고 '26.1월호

- 중국은 미국의 배타적 접근을 견제하면서도 협력 가능성을 기대*하는 가운데, 유럽 및 중남미와의 통상·공급망 연계를 확대하며 영향력 확대 모색

* NSS는 중국을 '대등한 경쟁자'로 규정하며,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 가능한 경쟁 관계로 재정립

-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*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미국의 유럽 개입 축소와 서방 결속 약화 가능성을 기회로 인식

* NSS는 러시아를 유럽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며, 유럽 중심의 대응을 강조